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4:6-16 성도의 인성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59장 /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small>(통일찬송 305장)</small>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내권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6:2-13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묵상에세이

프로와 매너리즘

제 올케 유현진 성도는 결혼 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가 남동생과 결혼하면서 시부모의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는 점차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됐었죠. 성당을 다닐 때는 성모 마리아와 신부를 통해 주님께 나오는 것 같았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 가는 은혜를 감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얘기를 듣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떠나 혼자 병실의 올케를 만나러 갈 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가야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가쁜 호흡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매달리는 올케를 보며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40 도 안된 그의 병고를 보는 가족이 주의 사랑 안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쓰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말씀을 읽고 기도해 달라는 올케 옆에서 제가 도리어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구속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되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감당할 수 없이 받았지만 더 큰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온 가족과 제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올케 유현진 성도의 손을 잡고 말씀과 묵상으로 간구합니다. 남편 보다더 오히려 저에게 의지하는 올케를 보며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면서 힘들어 하실 정홍렬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게 됐구요. 동시에 육체적 고통 앞에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나약함에 지나온 저의 교만함과 안일함을 회개하게 됐어요.

허무한 인생. 귀중히 여기는 돈과 명예, 그 무엇도 생명의 소중함 보다 위에 있지 않는데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시간이 주어질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변의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정연미 사모님이 정목사님의 위태로운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저와 올케를 오히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덕목을 배웁니다. 나 역시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되고 어머니같이 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 구은강 집사

한 주간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가 미안하다는 마음은 차라려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개인적 문제와 가정과 교회의 짐을 다 져주시는 것을 믿고 겸손히 나가며 하나님과 고제하는 한 주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내가 유복한 자는 내가 유복한 자고 내가 유복한 자는 내가 유복한 자" (야고보 1:12)

교회와사역

미래 크리스천 리더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기, 교회 리더들 책임 / 미래 크리스천 리더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 교회, 사명 위해 권능 받는 곳, 그 자체가 목회자 안 돼 / 달라질 수 있는 길, 오로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던 2017년이 아쉬웠다. 한국교회가 내부 문제와 외부 비판들로 너무 위축돼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이다. 이번 3·1절 100주년은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기회다. 많은 역사가들이 3·1 운동은 기독교가 없었다면 안 됐을 거라고 말한다. 참여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비록 작았지만 당시 전국적 네트워크가 있었던 곳도 교회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경찰에 잡혔던 분 대다수가 크리스천 리더들이었고, 특히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거의 목회자들이었다. 이에 3·1 운동에 갖는 기독교 정신을 되살려, 위축돼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에게 도전과 새 힘을 주는 무브먼트를 소망한다.

사실, 부담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전이나 위기의 시작은 교회 리더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회복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역부족이다. 대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바램들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우리 스스로가 한국교회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뿐, 전략도 없다.

리더들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오늘날 문제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교회나 목회자들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못 댔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겠냐'고. 또 말한다. '뭔가 있으니 저런 교회를 할 수 있지, 다 잘 하고 그것 하나가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듯이 99%를 잘 해도 핵심적인 1%가 안 댔다면 헛되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교회다움의 1%가 무엇일까? 다른 모든 것들을 잘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 안타깝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Lordship)의 문제이다.

미래 크리스천 리더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3·1 운동 역시 기독교가 영향을 끼쳤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통로로서의 교회나 리더로서의 삶이 형성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로드십에 있다.

물론, 크리스천 리더십은 주님의 종이 되는 데 있다. 각자의 생각이나 이념, 주장을 들고 나오면 안 될 것이다. 목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 역시 '종'이 맞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목사는 동시에 '리더'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리더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종의 자세'인 것이다. 종이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그 리더십의 태도가 '서번트십(servantship)'이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 일리 있는 이유는,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문제로조차 인정하지도 않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모여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 여는 박태남 목사 [크리스천 투데이 2019.2.6 인터뷰 기사 정리]

주: 이번 주는 [작고 강한 교회] 소개를 쉬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신 만한 교회의 일꾼인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인 만한 교회인가'의 질문을 해 봅니다. 또한, '중의 자제로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목표는 비단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성령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이가 명심할 것이기에 이 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올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2. Oikos사역: 오늘 저녁에 Oikos 모임을 가집니다. 친교와 영적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ell사역이 되도록 합시다.
3.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지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 퇴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정홍렬 목사의 Glenview소재 Dialysis Center의 투석, 한국에서 입원중인 유현진 자매, 치료와 회복,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5. 정출리 권사님이 Alabama로 이주하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6. 제직/사역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제: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7.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 ★ 교우 동정 :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 ★ 이달의 생일 축하 : 정시현(2.5) 구민경(2.28) 유동숙(2.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2/17	2/24	3/3	3/10
		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주일 헌금 위원	주일헌금위원	2/22	3/1	3/8	3/15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주일 안내 위원	주일안내위원	2/17	2/24	3/3	3/10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2월	3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 고린도전서 4:1-7

좋은 일꾼의 모습을 세 가지, 소명의식,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정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귀한 직분, 교회, 가정, 하나님 나라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충성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며, 성도의 충성을 위한 칭찬을 준비하신다. 성도가 추구할 것은 상대적인 부귀영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도록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혼자 빈 손으로, 숨겨진 것들을 나타내시고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된다.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자.

성도의 인성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 고린도전서 4:6-16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감성지수는 영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고린도교회 성도의 관계성은 어떠합니까?**

첫째, 그들은 서로를 대적하였습니다.

둘째,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성과 감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의 인성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 고린도전서 4:6-16

기독교인들의 감성지수는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감성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며 영성이 쌓이면 자연히 감성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러기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감성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성지수는 아주 낮은 단계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영성 또한 형편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고린도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를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몰랐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엉뚱하게 서로를 적대시켰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라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명, 가족, 물질, 재능, 시간,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우리의 교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서로 적대시하며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육에 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대신 이 땅에서의 풍족함에 만족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성이든 감성이든 바닥이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높은 감성과 영성으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맞서는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영성과 높은 감성 모두를 갖추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은 감성과 영성 모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성이 깊어지면서 감성까지 발달하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성과 감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둘 다 파란불입니까? 혹시라도 둘 중의 하나라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늦기 전에 회복해야 합니다.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감성으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역사가 잘 될 것이 내가 범사에 착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February 17,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2월 17일

5-7호

기도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